

사회



산타집배원 힘찬 출발 산타옷을 입은 집배원들이 23일 서광주우체국(국장 박주성)에서 '사랑이 넘치는 우체국, 희망을 전하는 산타집배원' 발대식을 가진 직후 불우한 이웃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 힘차게 출발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천 자연형 정화사업 추진했더니...

동식물 393→533종 수질 5→3등급으로

이달 말 5년만에 완공

5년에 걸쳐 689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광주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이 이달 말 완공된다.

공사 과정에서 인위적인 시설물 설치 등으로 환경단체들의 일부 반발도 있었지만, 하천의 우수량이 늘어나 자정기능을 회복하고, 하천 주변에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면서 이용자가 과거에 비해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04년 말 '광주천정비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동구 선교동~서구 유촌동 영산강 합류지점까지 광주천 18.2km와 광주천 합류지점~동구 학동 속살마을까지 증심사천 0.95km를 포함한 19.15km 구간에 걸친 '광주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이 이달 말 마무리된다.

이 사업은 상류(용연동~원지교)와 중류(원지교~광전2교), 하류(광전2교~영산강 합류지점)로 나뉘어 각각

'자연 속의 하천', '문화 속의 하천', '생태 속의 하천' 등의 테마로 꾸미고, 광주하수처리장을 통해 BOD 3ppm 이하로 여과한 하천유지용수 하루 10만톤을 기존 방류수와 함께 흐르게 했다.

또 콘크리트 보 등 인위적인 시설물을 철거해 생태서식이 가능한 블록과 자연석 등으로 호안을 축조했으며, 어류 이동이 가능한 어도와 여울형 낙차공 설치, 갯벌 등 수생식물 식재 등의 개별 사업도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환경과 수질이 정비된 광주천이 사후 환경조사영역에서 공사 전 5등급이던 수질이 추가 확보된 유지용수 방류 후 3등급(중류구간 기준)으로 점차 개선되고 생태계에도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며 "광주천 인근 자연생태 조사결과 공사 시행 전인 지난 2004년 393종이던 동식물이 올 9월 현재 533종으로 1.4배가량 증가했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38분 해질 17시 26분 달돋이 11시 50분 달짐 --시--분

**크리스마스 이브** 맑다가 오후부터 점차 구름이 많이 끼겠다.

도시	날씨	기온
광주	맑은 뒤 흐림	3/12℃
목포	맑은 뒤 흐림	3/11℃
여수	맑은 뒤 흐림	5/12℃
완도	맑은 뒤 흐림	4/12℃
구례	맑은 뒤 흐림	-2/11℃
해남	맑은 뒤 흐림	0/13℃
장흥	맑은 뒤 흐림	-1/12℃
고흥	맑은 뒤 흐림	-2/13℃
순천	맑은 뒤 흐림	2/12℃
영광	맑은 뒤 흐림	2/11℃
진도	맑은 뒤 흐림	2/13℃
전주	구름 많음	2/11℃
남원	구름 많음	-3/11℃
목성도	맑은 뒤 흐림	7/11℃

바다	중랑	파고	체감온도	동파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남동~남	0.5~0.5m	관심	↑	↑
남해 서부 앞바다	남동~남	0.5~0.5m	관심	↑	↑
남해 서부 앞바다	남동~남	0.5~0.5m	관심	↑	↑

◇주간날씨 기상안전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5(금)	26(토)	27(일)	28(월)	29(화)	30(수)
날씨	☁	☁	☁	☁	☁	☁
최저/최고	4/9	-1/2	-2/4	-3/2	-3/3	0/5

2015 광주U대회 시민의 힘으로 ① 국제도시 걸맞은 시민의식

광주로 쏠리는 세계의 이목 명품도시 이미지 심어주자

2015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앞두고 내년부터 꺾직한 스포츠 대회가 잇따라 열리는 가운데 '명품' 도시 이미지 구축을 위한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와 시민단체들이 수년 동안 꾸준히 기초 질서 운동을 펼치고 있지만, 불법광고물, 쓰레기 불법투기, 주·정차 위반 등이 여전히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 광고물·쓰레기 투기·주정차 여전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 적극적인 참여를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기초질서지도반을 편성해 5개 구를 대상으로 기초질서 지키기 실태를 점검해 모두 76만9천여건을 단속·정비했다. 이는 광주시 인구를 140만으로 잡았을 경우 시민 2명당 1건꼴로 기초질서를 위반한 셈이다.

위반 사례별로는 불법 광고물 24만건, 쓰레기 34만2천건, 불법주정차 16만2천건, 노상 불법적치물 2만5천건 등이었다.

시는 기초 질서 위반 사례 증가 추세가 다소 둔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계U대회 등 국제적인 행사를 치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시가 ▲시민교육 및 계도 ▲옥외광고물 정비 ▲거리청소 ▲공중화장실 정비 ▲불법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 ▲불법주정차 단속 등을 펼쳤지만, 시민 참여도가 높지 않은 점이 문제이다.

특히 주간에는 불법광고물과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이 눈에 띄게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으나 단속의 손길이 거의 미치지 않는 야간과 주말을 틈타 무질서가 여전히 성행하는 상황이다. 광주시의 국제적인 이미지를 구축을 위해 대형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하는 상황에서 도시 시민들의 낮은 질서의식이 되레 방문객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또 내년에는 6월 개막하는 세계 장애인 탁구선수권 대회를 비롯한 세계주니어여자핸드볼선수권대회, 세계 광역스포츠가 잇따라 열릴 것으로 세계인들의 이목이 광주로 쏠린다.

이러 2012세계대학배드민턴선수권대회 등이 연이어 개최돼 그 어느 때보다 수준 높은 질서의식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1일부터 이를 동안 전북 부안군에서 광주시 5개 구청 기초질서 담당자 67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초질서 담당 공무원 워크숍을 열고 연말연시 각종 무질서 행위 근절을 나섰다. 또 본격적으로 질서·친절·정결의 지역 이미지 정착을 위한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을 적극 펼쳐나가는 한편, 질서 지키기를 시민운동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등 국제도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시민들이 수준높은 질서의식을 보여주는 것이 관건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대 4.2대 1·광주교대 2.25대 1

정시모집 경쟁률

2010학년도 전남대학교 정시모집 경쟁률이 평균 4.2대 1로 지난해(평균 3.4대1)보다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시(가군, 나군)를 통해 2천 815명을 모집하는 전남대는 23일 원서 접수 마감결과, 총 1만1천871명이 지원해 4.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광주캠퍼스는 2천271명 모집에 9천737명이 지원해 4.3대1, 여수캠퍼스는 544명 모집에 2천134명이 원서

를 접수해 3.9대 1의 경쟁률을 각각 기록했다. 최고 경쟁률은 광주캠퍼스 조경학과로 각각 11.88대 1(가군), 12.67대 1(나군)을 기록했다.

학과별로는 정시 가군의 경우 의예과 3.1대1, 바이오에너지공학과 11.25대 1, 생활환경복지학과 8.42대 1, 영어교육과 4.29대1이었다.

광주교대는 438명 모집에 985명이 지원해 2.2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난해 경쟁률은 2.62대 1이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지검, 범죄피해자 40명에 지원금

광주지검은 22일 청사 중회의실에서 (사)광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함께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송년의 밤' 행사를 열고 광주·전남지역 범죄피해자 40명에게 지원금을 전달했다. '송년의 밤' 행사에서 범죄피해자에게 지원금이 전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광주지검 길대기 지검장과 강경필 차장, 박종욱 광주법

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범죄피해자들에게 각각 50만원과 쌀 1포대가 지원됐다.

길 지검장은 "이날 행사는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웃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며 "국회와 협조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이 통과되면 피해자들이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



조선대 로스쿨 탈락 확정 시국선언 주도 전교조 간부

해임 등 중징계

대법원 판결

전남대학교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선정 과정에 일부 위법한 점이 있지만, 학생들이 입학한 상황에선 이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조선대가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낸 '로스쿨 인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전남대의 인가 과정에 일부 위법한 점은 있지만 인가를 취소할 수 없다"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남대 교수가 법학교육위원으로 일부 학교의 로스쿨 선정 및 정원 배정에 관여한 것은 법학전문대학원설치법 13조를 위반한 것이지만, 이 교수들이 포함된 교수위원의 소속 대학이 아닌 조선대와의 관계에서는 하자가 없다"고 판시했다.

올 초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에게 해임 등 중징계가 내려졌다.

전남대학교육청은 2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홍성봉 지부장에 대해 해임을, 나머지 박현희 수석부부장 등 간부 3명은 징계유예 결정을 내렸다. 광주시교육청도 이날 징계위를 열어 김점섭 정책실장 등 전임자 3명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전교조 전남지부 관계자는 "이번 징계 결정은 교파부의 지시에 따른 요식행위로 공정한 심의가 아니다"며 "소청심사와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립학교 교사인 김태문 전남지부 대변인과 윤영조 광주지부장 등은 해당 학교법인에 해임 등 중징계가 요구된 상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장수 바다 장어**

100% 자연산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지동로 125-2 (지동동) 장수바다장어

전화: 062-383-1110

**영림 매력한우**

맛있는 직판장

영림매력한우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지동로 125-2 (지동동) 영림매력한우

전화: 062-373-8339